

1.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

[수특] 도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윤리학은 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과 구분된다. (O)

[수완] 실천 윤리학은 옳음과 그름의 당위적 기준에 대한 탐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이론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가치 지향적으로 진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재물이나 명성을 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영혼을 훌륭하게 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. (O)

[수특]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. (O)

[수완]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을 통해서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감정과 모든 행위에 중용이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, 심술 등의 감정이나, 절도, 살인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지성적 덕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품성적 덕의 하나인 습관적 지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으로 ‘마땅한 때에, 마땅한 일에 대하여, 마땅한 사람에게, 마땅한 동기로’ 느끼거나 행하는 중용을 강조한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모자람이, 악덕과는 다른 중용의 특징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밀은 무엇이 진리인지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론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밀은 인간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밀은 침묵을 강요당한 어떤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이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몸가짐이 올바른지를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. (O)

[수특] 이이는 정좌와 구용을 중시한다. (O)

[수특] 수오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다. (O)

[수특] 시비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. (X)

[수특] 공자는 예를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으로 본다. (O)

[수특] 유교와 장자 모두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유교는 인간이 도덕적 지각 능력과 실천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닌다고 본다. (O)

[수특] 공자는 사욕을 회복하고 예를 극복해야 인이 이루어진다고 본다. (X)

[수특] 공자는 형벌, 무력, 도덕, 예의를 모두 균등하게 사용하는 덕치를 중시한다. (X)

[수특] 유교는 건리사의를 중시한다. (O)

[수특] 유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천인합일을 중시한다. (O)

[수완] 유교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 중 일부는 인간의 본성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유교는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이기적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유교와 도가 모두 이상적인 인간은 덕에 따라 행동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유교와 도가 모두 군주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유교와 도가 모두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유교는 하늘이 부여한 순성한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맹자는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맹자는 학문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불교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나나 모두 평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불교는 중도가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에서 벗어난 수행 방법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불교는 마음속의 번뇌를 제거하여 불변의 오온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불교는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더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도가는 도의 관점이 아니라 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도가는 삶과 죽음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초월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노자는 ‘도’가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노자는 ‘도’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나 지식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노자는 ‘도’가 천지만물의 근원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노자는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의 상선약수를 제시한다. (O)

[수특] 노자는 겸허와 부쟁의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장자는 제물과 소요유를 중시하였으며, 제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에는 좌망과 심재가 있다. (O)

[수특]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, 시비, 미추의 분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장자는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상대적인 법으로,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이다. (X)

[수완] 아퀴나스와 칸트 모두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행위가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퀴나스는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것의 궁극적 목표가 자신의 도덕적 완성이라고 본다. (X)

[수완]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선의지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라고 본다. (O)

[수완] 칸트는 동정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선의지에 입각하여 의무로부터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칸트는 후천적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칸트는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가 모두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필연성에 입각한 행위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선의지를 무제한적으로 선하며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준칙을 객관적 행위 원리로, 격률이라고도 본다. (X)

[수특] 칸트는 오로지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칸트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도덕 법칙에 자율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벤담은 쾌락 계산 기준에 강도, 지속성, 확실성, 근접성 등을 포함한다. (O)

[수완] 벤담은 칸트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토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

[수완] 밀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공리주의는 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,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 (O)

[수특] 현대 덕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과 달리 행위자의 성품만을 평가한다. (X)

[수특]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유용성을 따지는 것보다 행위자의 도덕성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매킨타이어는 덕이 실천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성향으로 이해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매킨타이어, 칸트, 밀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매킨타이어와 달리 칸트와 밀은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보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매킨타이어는 개인이 가족,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. (O)

2. 생명과 윤리

[수완] 플라톤은 죽음 이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, 악인보다 선인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플라톤은 죽음이 지혜 있고 선한 신들에게 가는 것이라는 신념이 없다면, 죽음이 왔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쇼펜하우어는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쇼펜하우어는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삶에 대한 의지가 본능적으로 깃들여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고통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한다. (O)

[수특]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고통이므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 잊을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유일신의 의지가 반영된 운명적, 필연적 사건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장자는 성인이 재주와 지혜를 버린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도가는 불교와 달리 삶과 죽음은 도의 무목적적 작용에 따라 기가 모이고 흩어짐으로 존재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도가와 불교 모두 죽어서야 비로소 삶과 죽음의 지속적인 순환 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불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만이 불살생계를 어기는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하이데거는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샌델은 배아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잠재적인 인간 생명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샌델은 배아가 불가침의 권리를 지닌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배아 연구 활용은 허용가능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보부아르는 남자들이 여자로 하여금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세계를 비판한다. (O)

[수특] 보부아르는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을 비판한다. (O)

[수완] 보부아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다움의 신비를 내면화하고 받아들인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나딩스는 배려 윤리에 기초한 교육 철학과 교육 이론을 제시한다. (O)

3. 사회와 윤리

[수특]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윤리로 부모는 자애하고 자녀는 효도할 것을 강조한다. (O)

[수특] 유교에서 가족은 서로 살피 친애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유교는 부모가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한다면 부모와의 혈연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자유주의에서 성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. (O)

[수특] 플라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서로 달라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플라톤은 생산자 계층은 통치자 계층과 달리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본다. (X)

[수완] 플라톤은 국가 전체의 선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“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신뢰, 호혜성의 규범,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요소”라고 정의한다. (O)

[수특] 퍼트넘은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구성원 간의 협력적 행동이 촉진되어 효율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퍼트넘은 포괄적 호혜성의 효율적 규범이 중요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퍼트넘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조직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란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게도 유익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견리사의는 사사로운 이익을 접할 때 그것이 의뢰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뜻한다. (O)

[수특] 정약용은 절용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정약용은 청렴해지고자 하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정약용은 애민 정신의 실현을 위해 목민관의 사적인 재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칼뱅은 천하게 여기는 직업 활동도 신이 보기에 귀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철폐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자본가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연대가 실현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마르크스는 노동 소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수단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마르크스는 국가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시행하면 이상적인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순자는 통치자가 예를 통해 백성이 갖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,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, 이성은 사회의 합리적, 도덕적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강제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이성이 강제력을 사회 정의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, 위험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니부어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강제력은 반드시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니부어는 사회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보다 갈등 제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니부어는 정치가 윤리적인 요인과 강제적 요인, 즉 양심과 권력의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맹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되 타인의 악행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맹자는 이익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올곧음을 강조한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,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는 비자발적 교섭이 아닌 자발적 교섭에서 발생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며, 이때의 동등함은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한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적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한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은 각 사람의 가치에 따른 명예, 돈 등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지향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교섭에서 해를 끼쳤으며 그만큼 보상해주고,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을 지향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교섭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할 때 당사자들을 동등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의 입장이다. (O)

[수특] 롤스는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롤스는 자연적,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정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롤스는 같은 능력과 포부를 가졌어도 같은 성공 전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 자연적,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한다. (O)

[수완] 롤스는 복지 국가 자본주의가 부의 격차를 방치하다가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소득을 재분배하여 사람들이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시도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에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체계 정립을 추구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경제학적 지식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롤스는 노직에게, 개인의 더 우월한 재능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
[수특] 노직은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권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노직은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노직은 양도의 원칙에 따라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소유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노직은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는 개인의 과거 행위를 고려하는 역사적 원리라고 본다. (O)

[수완] 노직은 롤스와 달리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노직은 정형적 원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왈처는 정치적 평등주의의 목표는 지배가 없는 사회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. (O)

[수특] 왈처는 정치적 평등주의를 통해 지배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평등한 상황을 실현하고자 한다. (O)

[수특] 왈처는 가상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분배 체계가 현실의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.

[수특] 왈처는 정의의 원칙이 다원주의적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왈처는 각각의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러야 복합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왈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. (X)

[수특] 교정적 정의의 응보적 관점은 처벌의 본질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교정적 정의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처벌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다. (O)

[수특] 벤담은 모든 처벌이 그 자체로서 악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벤담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처벌이 인정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벤담은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처벌을 정당화 한다. (O)

[수특] 벤담은 처벌의 목적이 일반인에 대한 교화와 과 범죄자에 대한 범죄 예방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벤담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 근거를 오직 고통이나 쾌락으로 본다. (O)

[수특] 벤담은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벤담은 형벌이 산출하는 해악이 형벌이 방지해야 하는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베카리아는 생명을 양도할 수는 있으나 사형은 부당하다고 본다. (X)

[수특] 루소는 사회 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살인범이 사회 계약을 위반한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베카리아는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베카리아는 범죄의 진정한 척도가 범죄자의 의사에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자가 아닌 형벌을 목격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형벌은 언제나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형벌을 집행하고자 할 때 범죄자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밀은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목자는 천하의 모든 재난과 찬탈, 그리고 원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므로, 서로를 두루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홉스와 달리 국가 공동체의 형성이 정의 실현의 전제가 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는 인위적인 산물이라고 본다. (X)

[수특] 공자는 군주가 상벌에 우선하여 인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공자는 군주가 재화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공자는 인도하기를 덕으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하면 백성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또한 선에 이른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정약용은 공직자가 도를 실현하려는 큰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한비자는 공자와 달리 인의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로크는 국가의 주목적은 그 국가에 속한 전 구성원의 재산 보존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하는 이기적 존재이므로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법에 따라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홉스는 로크와 달리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홉스와 로크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자연권에 속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홉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국가가 상호 신의 계약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인격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홉스와 달리 인간의 이성이 사회 계약을 맺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루소는 사회계약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도덕적, 집합적 단체에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는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로크와 달리 사회 계약의 주체가 주권자로서 입법권을 지니므로 입법권은 수중에 맡겨질 수 없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시민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의 행위에 과거에는 없었던 도덕성을 부여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지만,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홉스와 달리 국민이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라고 본다. (O)

[수완] 루소는 국가가 완전한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홉은 국가가 시민에게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소로는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소로는 인간의 의무가 어떤 악을 근절하는 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최소한 그 악과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소로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,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롤스는 다소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를 지키려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본다. (X)

[수완]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불복종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싱어는 어떠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일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싱어는 롤스에게 성공 가능성을 숙고한 후에 시민불복종이 행해져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
[수특] 싱어는 롤스에게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O)

[수완] 싱어는 롤스와 달리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드워킨은 헌법이 정치 도덕의 근본으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4. 과학과 윤리

[수특] 베이컨은 기술과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이 정치적,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베이컨은 과학이 전적으로 유용한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요나스는 “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인간의 참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하라.”라는 정언명령을 제시한다. (O)

[수완] 요나스는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지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하이데거는 기술을 목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하이데거는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가 도발적 요청이라고 보며, 이에 따라 탈은폐 되는 모든 것은 부품이 될 뿐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아퀴나스는 인간에게 모든 다른 실체들과 공유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퀴나스는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도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퀴나스는 행위의 동기에 따라 자신에 대해 위해 행위의 선택이 결정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 모두 생명체는 모두 자신의 고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일러와 달리 이성적 능력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인간에게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실험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코헨은 동물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이 없으므로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싱어는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테일러는 인간과 동물이 생명체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테일러는 싱어에게 생명 공동체 그 자체와 그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 (X)

[수완]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,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한다. (O)

[수완] 네스는 인간이 자아를 우주 전체와의 동일시를 추구하는 ‘큰 자아’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불교에서는 불성을 형성한 생명체에 대해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슈바이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. (X)

5. 문화와 윤리

[수특] 정약용은 음악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여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공자는 인간이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, 예에서 서며, 음악으로써 자기를 완성하게 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정약용은 음악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여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공자는 시, 예, 악이 인간됨의 형성에서 기본적인 교양이 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모방에 의한 재현에 쾌감을 느낀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이라고 본다. (O)

[수특]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이 대상의 완전함,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순자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미적 판단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미는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미의 판단 형식에서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미가 인간의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미와 도덕은 모두 보편적인 타당성이 요청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칸트는 미적 판단은 이해 관심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칸트는 미적 즐거움은 감상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톨스토이는 예술의 감영성에 주목한다. (O)

[수특] 톨스토이는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라고 본다. (O)

[수완] 톨스토이는 진짜 예술과 가짜 예술을 구분한다. (O)

[수완] 톨스토이는 진짜 예술은 형재애를 불러일으키고 어린아이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본다. (O)

[수완] 톨스토이는 난해한 예술 또한 예술이라고 본다. (X)

[수완] 톨스토이는 부자와 빈자의 분열을 초래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 본다. (O)

[수완] 톨스토이는 자만심,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예술은 가짜 예술은 아니지만, 나쁜 예술이라고 본다. (X)

[수완] 와일드는 예술가가 윤리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며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(O)

[수완] 와일드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과 구분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와일드와 칸트 모두 예술의 영역은 도덕의 영역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. (X)

[수특] 지멜은 유행이 특정 집단의 연대감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고 본다. (X) -> 원인이기도, 결과이기도.

[수특] 볼테르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중시한다. (O)

[수완] 포퍼는 논증과 경험을 중시하는 비판적 합리주의가 과학적 태도와 가깝다고 보며,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포퍼는 누구도 자신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포퍼는 이성에 대한 비판적 합리주의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에 대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성에 대한 신앙을 더욱 강조한다고 본다. (O)

[수특] 엘리아데는 자신을 오직 역사의 주체로 보는 인간은 성스러운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은 자연적 사물과 전혀 다른 하나의 실재로서 현현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것 앞에서는 비종교적인 인간만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엘리아데는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믿는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인간의 충동을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한다고 본다. (O)

6. 평화와 공존의 윤리

[수특] 원효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한다. (O)

[수특]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, 일심을 토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원효는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 (O)

[수완] 포퍼는 우리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합리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관용의 정신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한다. (O)

[수완] 포퍼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호 시인함으로써 독선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포퍼는 언어의 올바른 사용과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 (O)

[수완]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 규범을 준수할 때 발생 가능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모겐소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. (X)

[수완] 모겐소는 평화가 상호 억지와 세력 균형에 의한 국가 간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. (O)

[수완] 모겐소는 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행동 및 판단 기준으로 국익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칸트는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화 정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칸트는 전쟁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, 항복 조항의 파기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칸트는 평화 연맹이 평화 조약과 달리 모든 전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싱어는 국경은 해외 원조 의무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. (O)

[수완] 싱어는 원조가 자신과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이방인에 대한 원조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싱어는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싱어는 롤스와 달리 모든 사람은 절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. (X)

[수완] 싱어는 기부의 초점을 빈곤국의 경제 성장이 아닌 극빈층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. (O)

[수완] 싱어는 기부가 인류의 보편적 의무이므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자발적 기부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. (X)